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영도 육도 새롭게 하라.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육신도 잘 되니 영을 새롭게 하면 육도 새로워진다.
2. 축소시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육도 새롭게 된다. 마음도 새롭게, 혼도 새롭게, 육도 새롭게 하라.
3. 새롭게 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4. 육도 영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올해 2021년의 표어이자 목적의 말씀이다.
5. 영혼을 새롭게 하려면 영은 보이지 않으니 육신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이 변하지 않고서는 영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먼저는 육 있는 자요, 다음은 신령한 자다.
6. 육적 변화는 영적 변화이다. 육이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새롭게 움직이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해서 행하면 영도 바로 변화가 있다.
7. 육이 신령한 만큼 영도 신령하다.
8. 영이 신령하고 새롭게 되는 일은 옛 집에서 벗어나서 새 집으로 이사 가듯이 육신이 구시대를 벗어나서 새 시대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뒤집어지고 좋고 이상적인 일이나.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일이다.
9. 육도 영도 새롭게 되라는 말씀은 시대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완전히 전환을 하라는 것이다. 완벽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고 일체 되고, 그의 마음이 되어 그와 일체 되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다.

10. 그 시대 자체가 변화되어 새롭게 하는 것도 있다. 이는 마치 자기가 살던 옛집을 수리하고 다시 만들고 더 보강을 하는 격이다. 그래도 이것은 누가 봐도 역시 그 위치, 그 환경, 그 집, 그 물건들이다. 그러나 옛집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이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하늘도 땅도 살던 곳과 전혀 다른 곳이다.
11. 섭리에 오기 전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완전히 섭리사로 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교회이고 따르는 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12. 기성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근본을 모른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믿고 섬긴다고 인정하신다.
13. 영광의 주간이 끝났다고 끝났다 하지 말아라. 설교가 끝났다고 끝났다 하지 말아라.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것이다.
14.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고 성령께 물으니 “너를 생각해 보아라. 네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와 똑같다.” 하셨다. 이에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니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최고 영광이니라.” 하셨다.
15.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라. 그것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최고의 기쁨을 주고 새롭게 하는 일이다.

16.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창조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일생동안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신부로서 사는 것,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알고 깨닫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애인되어서 사는 것이다.
17. 그때그때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배고픈데 춤을 추고 있으면 영광이 아니고, 추운데 돈을 주면 영광이 아니다. 창조목적을 이루는데 그 안에는 전도도 있고, 관리도 있고, 헌금도 있고, 감사도 있다. 그때에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한다.
18.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해주려면 먼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상과 정신과 이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19.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라. 항상 그 목적 속에서 해나가야 한다. 절대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면서 그때마다 원하는 심리에 맞춰드려야 한다. 같이 발장구치면서 해나가라.